

최희섭, 4번 타자·1루 맡는다

“당치 큰 (최)희섭에 걸맞게 체질개선 중...” 최희섭(28)의 목직한 방향이 하나가 ‘호랑이 군단’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최희섭의 가세로 타순이 조정되고, 수비진이 바뀐다. 내친김에 마운드까지도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용병 퇴출이 가장 눈에 띈다. KIA는 지난 11일 잦은 부상호소와 불안한 제구력을 보인 ‘신입용병’ 마이클 에서튼을 퇴출하고, 미국 마이너리그 출신 제이슨 홀 스코비를 19만8천달러에 영입했다. 올레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산하 마이너 트리플A 시리큐스에서 썸 스코비는 직구 최고구속 145km로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와 제구력이 수준급이다. 스코비는 16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음날 일본으로 넘어가 취업비자를 받고 18일부터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에서튼이 이어 4번타자 래리 서튼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서튼은 KIA 감독은 최근 “서튼도 어려울 것 같다. 종아리 근육통 등으로 컨디션도 좋지 않고 공·수에서 전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며 서튼의 퇴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14일 현재 타율 0.270을 기록중인 서튼은 타점이 9개(홈런3개)에 불과할 정도로 찬스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튼도 퇴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지난 10일 LG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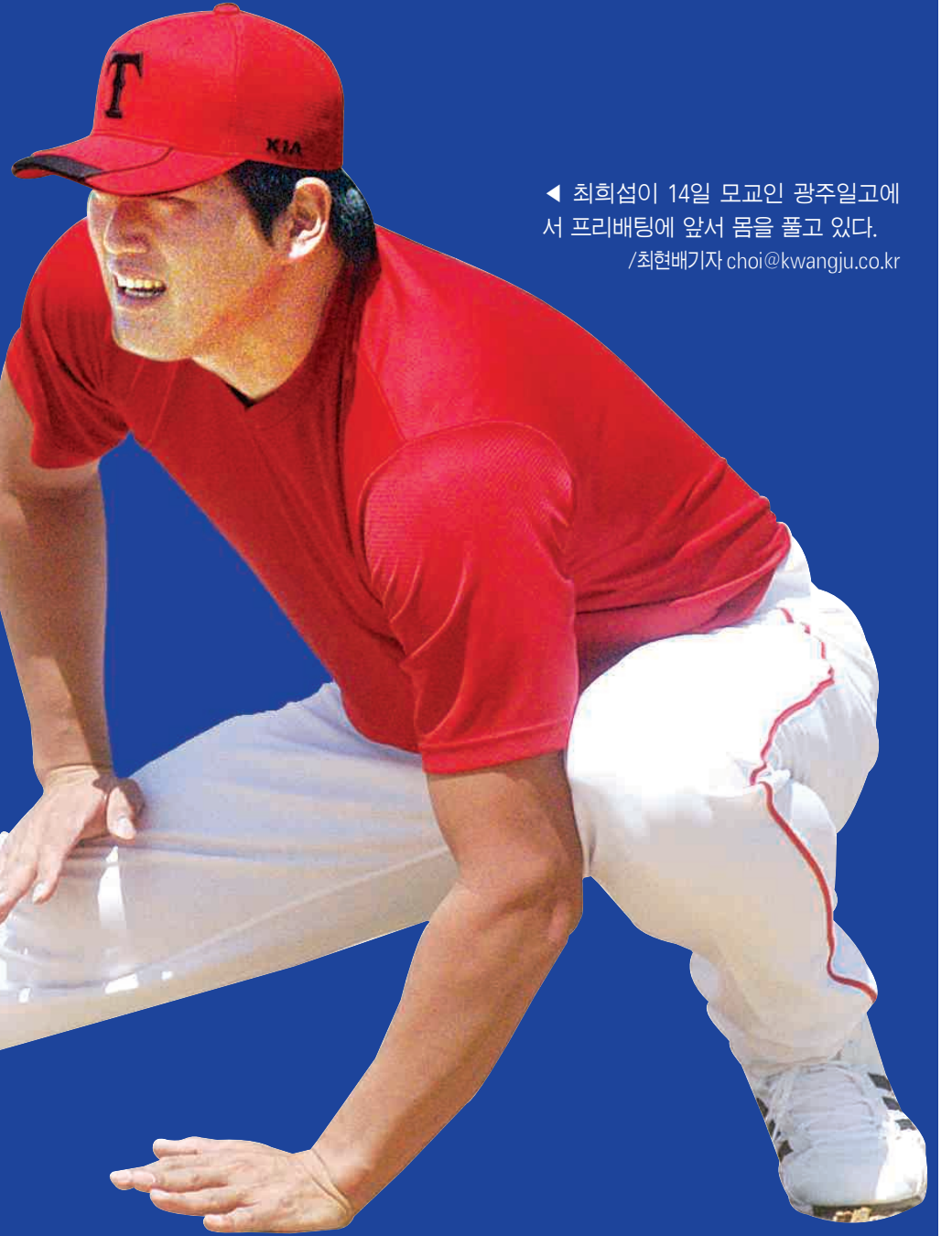
거포 들인 KIA, 대대적 ‘털갈이’

서튼 퇴출...용병투수 영입

장성호 외야로...타순 변경

에서 1회말 삼진 아웃을 당한 뒤 곧바로 턱아웃을 떠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튼이 방출될 경우 ‘토종 에이스’ 김진우 등이 빠진 마운드의 보강이 가장 유력하다. KIA는 실제로 최근 서튼의 대체 용병으로 KIA를 거쳐 두산에서 활약하다 현재 대만 프로 야구 라뉴 베이스에서 활약중인 좌완투수 개리 레스의 재영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류권(독점 계약권)이 걸립들이다. 개리 레스의 보류권을 가진 두산측이 “대가없는 보류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IA 구단은 또 다른 용병투수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용병 교체작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KIA의 현 선발체제도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윤석민-스코비-이대진-신입용병-진민호(전병두) 등으로 5선발진을 구축하고, 신용운-한기주가 허리와 뒤를 맡는 것이다. 타순은 이미 대수술이 시작됐다. 최희섭이 4번타자와 주전 1투수를 맡고, 장성호는 좌익수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장성호가 가세한 외야는 이용규(중견수), 이종범(김원섭, 조정환·우익수)으로 재편성된다. KIA구단은 이번 개편작업이 성공할 경우 최하위로 추락한 팀의 성적도 수직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시즌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변혁의 바람이 자칫 팀 분위기를 망치는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신입용병의 기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희섭 효과를 얻은 KIA호가 순풍을 타느냐, 역풍을 맞느냐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5월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희섭이 14일 모교인 광주일고에서 프리배팅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스페인 VS 뉴질랜드 “우리가 결승 간다” 15일 스페인 발렌시아 해안에서 열린 루이비통 컵 ACM2007 요트대회 준결승에서 뉴질랜드 팀(오른쪽)과 스페인팀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 슈퍼 루키’ 김경태 3개대회 연속우승 도전

KPGA XCANVAS오픈 내일 개막

올해 한국프로골프에 돌풍을 몰고 온 ‘슈퍼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사진)가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사냥에 나선다. 개막전을 포함해 2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이룬 김경태는 17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동코스(파72·7천548야드)에서 열릴 XCANVAS오픈에 출전한다. 김경태가 XCANVAS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 한국프로골프 사상 두 번 밖에 없는 3개 대회 연속 우승기록을 세우게 된다. 3연승은 지난 1991년 최상호(52·카스코) 이후 2000년 최광수(47·동아제약)가 달성한 뒤 6년동안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데뷔전 우승이라는 신기록을 만들 어낸 데 이어 ‘루키 2연승’을 거둔 그가 3연승을 내달린다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기록이 만들어진다. 대기록 탄생의 전망도 밝다. 개막전인 토마토저축은행대회와 매경오픈 등 잇따라 대회를 치르느라 고갈됐던 체력도 여드레 동안 달콤한 휴식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 경기장인 레이크사이드 동코스는 아이언샷과 퍼팅 실력이 돋보이는 김경태에게 궁합이 잘 맞다는 분석이다. 코스 전체 길이가 7천500야드가 넘지만 내리막 홀이 많아 비거리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원하는 지점에 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교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린도 빠르고 컵 주변에서 변화가 심한 퍼팅 라인이 조성되어 있다. 김경태는 지난 2004년 이곳에서 열렸던 익성배 아마추어선수권대회 때 지금은 일본에서 활약하는 이동환(20)에게 1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어 코스가 낯설지 않다. 실전을 치러본 것이 그 때 뿐이지만 레이크사이드 동코스가 프로대회를 연 적이 없어 코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선수보다 김경태가 한 수 위다. 그러나 올해 열린 대회에서 우승컵을 모조리 김경태에게 내준 상위 랭커들의 반격



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두 차례 대회에서 김경태의 우승에 들러리를 섰던 최광수와 신용진(43·삼화저축은행), 지난해 삼금왕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 등은 시즌 첫 우승을 단단히 버리고 있다. 초정선수로 출전하는 일본프로골프의 강자 히석호(34)와 아마추어 시절인 작년 삼성베네트오픈에서 김경태에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에 그친 ‘괴력의 장타자’ 이원준(21·LG전자)도 ‘김경태 타도’에 나선다. KBS 2TV가 지상파로 1.24라운드를 실험 중계하고 3라운드는 녹화 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은희 3주 연속 정상 노린다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 18일 개막

전통과 권위의 태영배 제2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경주의 디아너스골프장 레이크·벨리코스(파72·6천182야드)에서 열린다. 총상금 4억원, 우승 상금 1억원이 내걸린 메이저급인 이번 대회는 올 들어 생애 첫 우승부터 시작해 연속 가도를 달리고 있는 지은희(21·켈러웨이)의 3주 연속 우승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세리는 1996년 8~9월 동일레나우레이디스클래식-

FILA여자오픈-SBS프로골프최강전을 휩쓸었고, 김미현은 1997년 8~9월 유공인비테이셔널-FILA여자오픈-SBS프로골프최강전의 우승컵을 잇따라 가져갔다. 그러나 지은희와 맞붙어 2주 연속 분투를 삼킨 박희영(20·이수건설)과 작년 우승자 신지예(19·하이마트), 시즌 1승에 목마른 최나연(20·SK텔레콤) 등 강력한 견제 세력이 호락호락 이를 허락하지는 않을 심산이다. 신지예도 2연패 욕심을 내고 있다. 역대 한국여자오픈 2연패는 구옥희(51)와 김미현, 강수연(31·하이마트), 송보배(22·슈페리어)가 한 적이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홍진주(24·SK텔레콤)와 ‘코리아 킬러’

크리스티 커(미국)와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이 초청 선수로 출전, 한국 내셔널타이틀대회 우승컵을 노린다. 이와 함께 2006년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한 재미교포 김벌리 킴(16)도 출전, 국내 무대에 첫 선을 보인다. 대회가 열리는 코스는 전장이 6천182야드로 길지 않은 편이다. 파4홀과 파3홀은 대체로 짧다. 3번홀(파4·283야드)은 장타자들이 티샷으로 온그린을 시도할 수 있을만한 거리다. 이에 비해 파5홀 5개 중에 3개가 550야드가 넘는다. 7번홀(파5·597야드)은 600야드에 육박한다. 전반적으로 그린의 어렵고 주변에 벙커도 심심찮게 있어 장타자들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아 보인다. 슬럼프 모양의 그린에 있는가 하면 물결 치듯 굴곡이 심한 그린과 포대 그린 등 다양하다. 그린을 빠르게 조성하면 변수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SBS와 SBS골프채널이 매일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